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구축사업 박차

예타 면제 이후 적정성 심사...향후 5년간 4천억 투입
시, 첨단3지구 GB해제·인재양성 정부 차원 지원 요청

광주시가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꼽은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내에 AI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21년 단지 착공과 사업시너지 효과

를 위해 정부와 민주당에 첨단3지구 그린벨트(GB) 해제와 AI 인재양성 지원을 요청,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4,061억원을 투입해 첨단3지구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이하 AI단지)를 조성한다. AI단지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2,697억원), 창업보육 지원

(730억원), 융합분야 연구개발(634억원)으로 추진된다. AI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벤처·신생기업 기업 입주 공간, AI 특화 첨단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한다. 시는 지난 1월 정부로부터 AI단지 조성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받았다. SOC 건설이 아닌 미래 혁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한에 따른 것이다. AI단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9년에는 인공지능 창업기업 1,000개, 고용효과 2만7,500명, 인공지능 전문인력 5,150명을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에너지·헬스

케어·광산업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접목해 산업을 지능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복합 신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예타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심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 가칭 AI 추진단을 발족하고 AI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다. 추진단은 AI단지 조성사업 밑그림을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추진단에는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전문가, 지역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지역산업과 연계방안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 포괄적인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업기획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첨단3지구 GB 해제와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사업 지원 및 협력을 정부와 민주당에 요청했다. AI단지 사업이 본격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인 첨단3지구 GB 해제가 관건이다. 시는 GB 해제가 정해지면 내년 말까지 사업부지 토지수용과 함께 보상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또 사업지원을 위한 논리개발과 타 시·도가 수주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SOC사업의 예타면제 신청 등을 부각시켜 국회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가 AI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에너지·광산업 등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융복합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마음은 벌써 고향에 호남·전라선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21일 오전 광주승정역에서 시민들이 승차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 낙후 산단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 읍촌 이어 내년 대불·여수 추진

근로자의 정주·근로 환경이 열악한 전남지역 낙후 산단에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과 기술인력의 산단 취업 기피로 기업들의 인력난과 함께 전남지역 산단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산단 근로자들이 문화·주거·복지·편의 등의 기능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복합문화센터에는 주거와 복육·판매시설 등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설이 설치된다.

도는 대불·여수·광양국가산단과 읍촌 제1일 반산단 등 4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전남도는 올해 읍촌 제1산단에 대해 산자부 공모를 신청기로 했다. 읍촌 제1산단이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가 시작된다. 도 또 내년에는 대불·여수국가산단을 대상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복합문화센터는 문화·주거·복지·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집적화한 시설이다"며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focus
 무안~중국 연결 하일길 열렸다 ▶2면
 조선대 내일 차기 총장 선출 관심 ▶6면
 광주·전남 청년인구 유출 심각 ▶19면

‘300개월째 공사중’ 전남도 메스 들었다

공사중단·장기 미준공 건축물 정비
법적 분쟁 대상 행정지원책 마련

#1 2002년 착공한 영암 A아파트는 17년째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주의 자금부족과 유치권자간 분쟁으로 공정률 63%에서 2015년 모든 공정이 멈췄다. 3만3,116㎡에 15층 건물 3개동이 미완성 건물로 방치되면서 월출산 경관까지 저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에 법적 분쟁까지 더해져 아무도 손댈수 없는 상황이다.

#2 나주와 고흥에 들어서기로 했던 공장과 공동주택은 각각 312개월 270개월째 공사 중이다. 사

실상 사업자는 공사를 포기한 상태. 그러나 그동안 투자한 자금이 막대한 ‘공사중’이라는 이유로 20년 넘게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 공사현장 인근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오지나 다름없는 상태다.

전남도가 관내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메스를 들었다.

도는 조만간 장기 미건축 시설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과 만나 지원 및 매각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활용방안도 마련키로 해 지역 내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는 새로운 로드맵 제시가 기대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거나, ‘공사중’ 상태로 소유주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도내 22개 시·군에 566개소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9개월째 방치된 순천 의료시설은 지난 2015년 재건축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건축주가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 지원이 보류됐다.

또 영암 군서면 공동주택은 예비 선정대상에 포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 등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소유자가 당초 사업비보다 2배 이상 높은 매매가를 제시하면서 가까스로 이루어졌던 행정절차까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정부도 장기방치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사유재산이고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험요소 제거와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 초부터 LH 등에 자문 및 협의와 각 시·군의 기초자료 재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기로 했다.

도는 이들 건축물이 사유재산인 만큼 정비에 앞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행정대집행과 LH 등 공적기관에 공사대행을 의뢰해 사후 민원 최소화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공사재개 의사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미적 가치, 공공용도 활용 가능성을 따져 보조·융자와 함께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베지밀 건축모델 김석우 내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씩 건강매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엔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 주 단위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스텝 리포트 www.edaymail.com 1 문의 고객센터 080-800-8888, (02)553-8888 www.vogemil.co.kr